



numbers

vol. 253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한국교회 상황, 완전한 회복세!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미국 성경 이용자 실태
- ② '그냥 쉬었음' 인구 현황

2024. 8. 2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한국교회 상황, 완전한 회복세!

한국교회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사역 회복도 등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우리 연구소는 코로나 시작 시점부터 한국교회 주요 지표를 조사하여 추적해오고 있는데 2024년 6월 동일 항목에 대해 또다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이번 넘버즈 253호에서 발표한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출석자들의 신앙 지표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과 목회자들의 주일 현장 예배 강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코로나 이후 10~15% 교인들이 이탈한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교회에 희망적 메시지를 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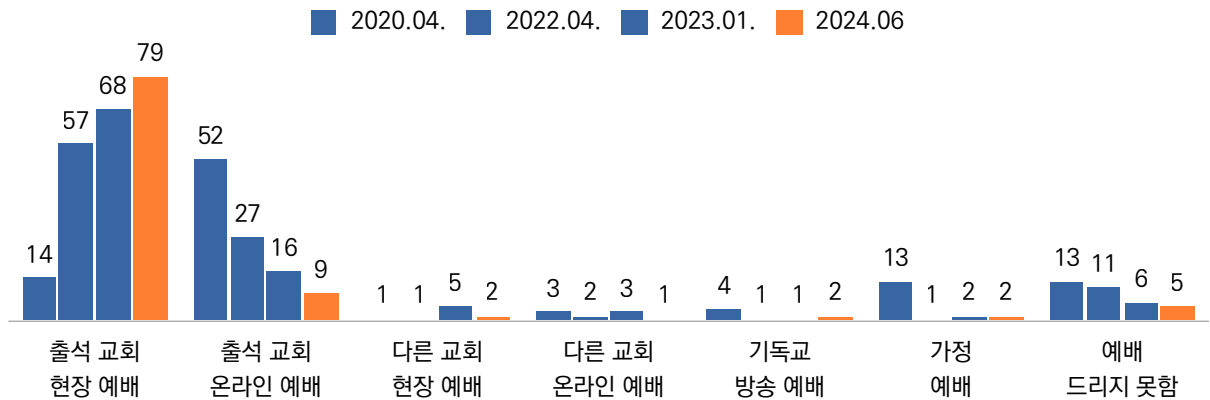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개신교인 신앙 지표1. 예배] 온라인 예배 참석, 10% 아래로 하락!

- 2024년 6월 현재 개신교인들의 교회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주일 드린 예배 형태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초기 시점인 2020년 4월 조사에서는 '출석교회 현장 예배'가 14%에 그쳤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장 최근 조사인 2024년 6월에는 79%로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는 2020년 절반(52%)에 달했다가 2024년 현 시점에는 한 자리수까지(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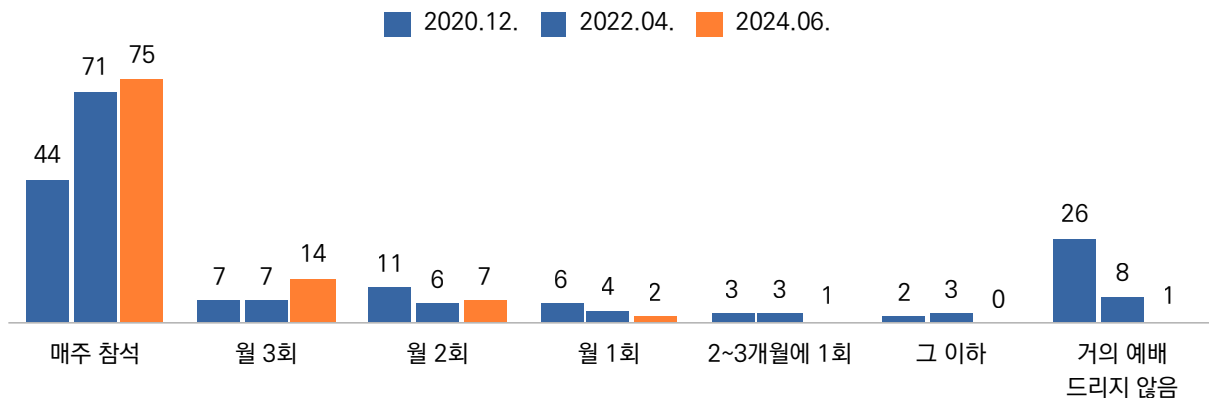
[그림] 지난 주일 드린 예배 형태 (교회 출석 개신교인, %)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자의 '매주 예배 참석' 비율 최고치!

- 교회 출석자에게 요즘 주일예배에 얼마나 참석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2024년 6월 기준 '매주 참석' 비율이 75%에 달해 2020년 12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 3회 출석자까지 합하면 출석 교인 대다수(89%)가 요즘 출석 교회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기에는 '온라인 예배자'가 9~10%가량(지난 주일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타 교회 온라인 예배 비율 기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림] 요즘 주일예배 참석 빈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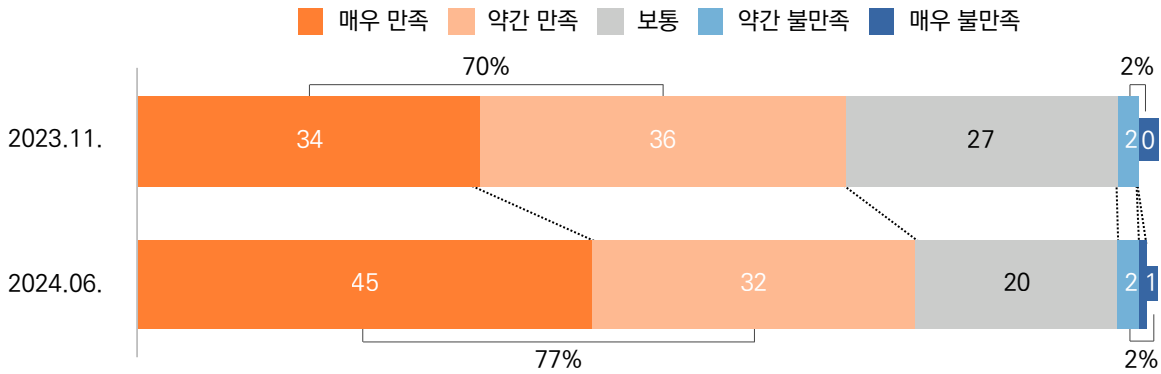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 포함

예배 만족도, 2023년 대비 상승!

- 주일 예배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약간)는 77%로 2023년 11월 조사(70%) 대비 높아졌으며, 이중 '매우 만족' 비율은 2023년 34%에서 2024년 45%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일 예배 만족도가 향상된 것은 최근 출석교회 현장 예배 참석률과 주일예배 참석빈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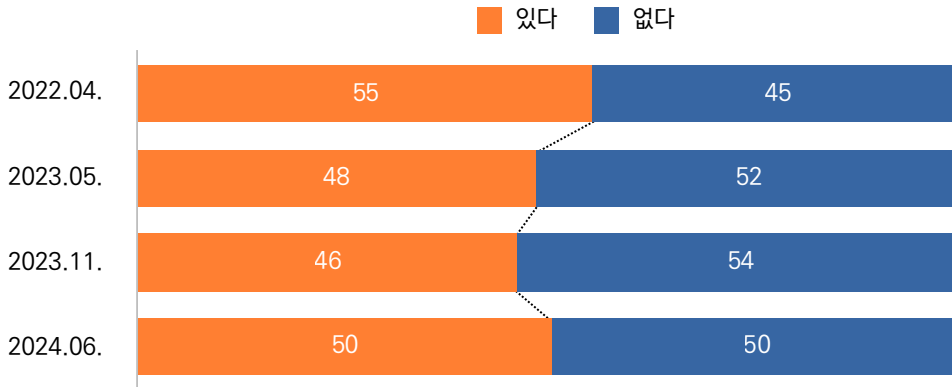
[그림] 지난 주일 예배 만족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중 지난 주일 예배 드린 자, %)



타 교회 온라인 예배 경험률, 2022년 이래 40~50%대 수준 유지!

- 교회 출석자들에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절반은 '있다'고 응답해 2022년 코로나 시기 이래로 40~50%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 (교회 출석 개신교인, 지난 1달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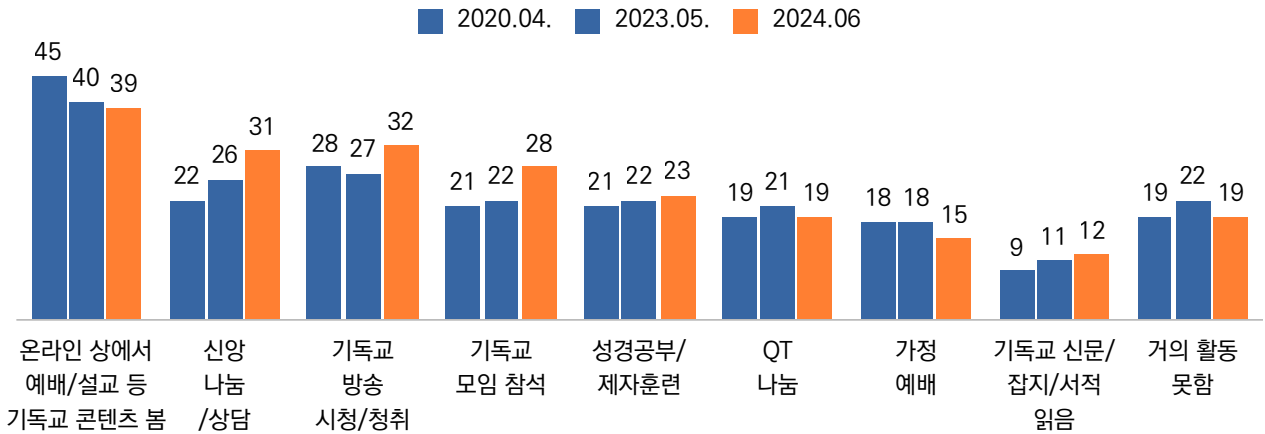


02

[개신교인 신앙 지표2. 신앙 활동] 신앙 활동, 전년 대비 주요 영역에서 활발해져

- 이번에는 지난 1주일간 어떤 신앙 활동을 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QT 나눔, 가정 예배 등을 제외한 주요 신앙 활동 영역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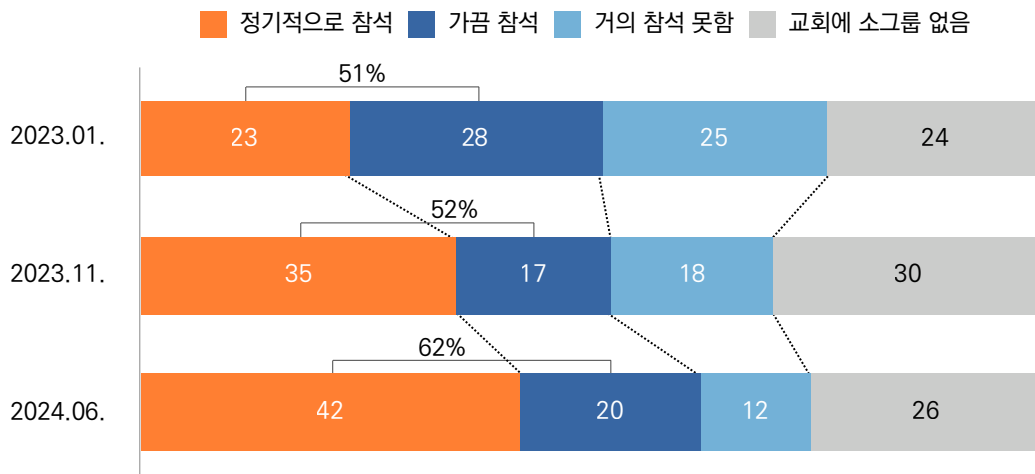
[그림] 지난 1주일간의 신앙 활동 (교회 출석 개신교인, 중복응답, %)



소그룹 정기적 참석자, 1년 반 사이 19%p 증가

- 교회 출석자들의 소그룹 참여 상황은 어떠할까? 2024년 6월 기준으로 소그룹 참석자(정기적+가끔)의 비율은 62%로 3명 중 2명 가까이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은 2023년 1월 23%에서 1년 반 사이 42%까지 크게 증가해 코로나 시기 위축되어 있던 교회 내 소그룹에도 점차 활력이 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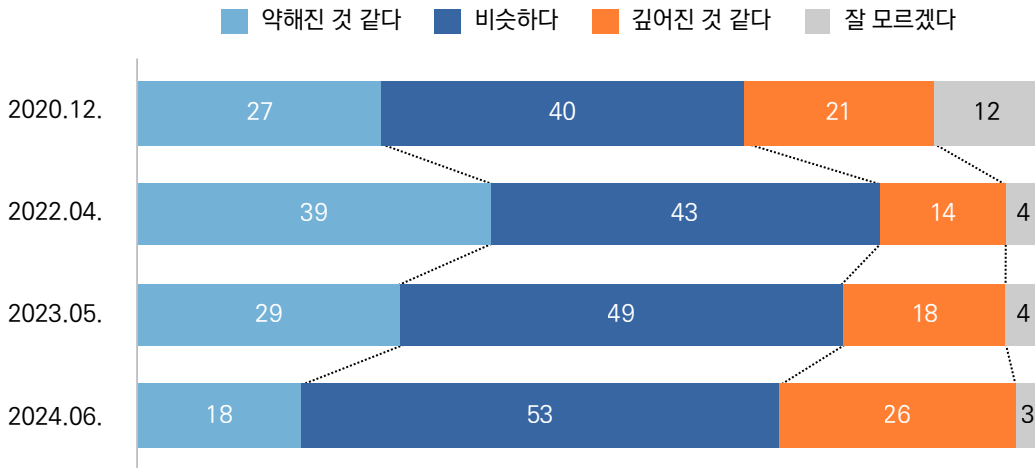
[그림] 신앙 소그룹 참석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



코로나 이후 신앙 깊어진 사람이 약해진 사람보다 많아, 처음으로 역전!

- 교회 출석자의 신앙수준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1%에서 2022년 14%로 가장 낮았다가 다시 높아져 2023년 18%, 2024년 2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출석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 이전 대비 자신의 신앙수준이 더 깊어졌다고 응답한 셈이다.
- 코로나 이후 그동안 '신앙이 깊어졌다'가 '신앙이 약해졌다'보다 항상 낮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되어 높아진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수준 변화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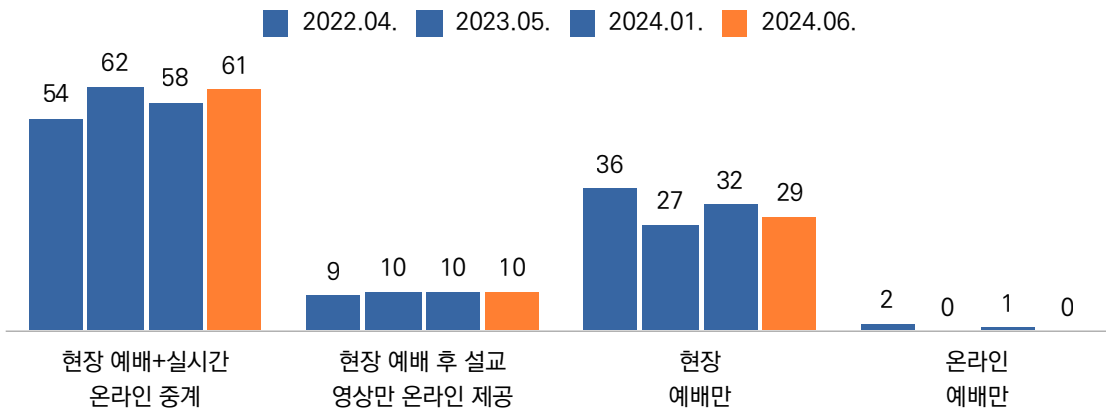


03

[목회자의 인식1: 주일예배]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 10개 중 3개!

- 현재 시무교회 주일예배 방식에 관해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묻은 결과, '현장 예배+실시간 온라인 중계'라는 응답이 61%로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 6월 이후(2023.05. 62%, 2024.01. 58%, 2024.06. 61%) 10개 중 6개 교회가 온오프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예배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현재 주일예배 방식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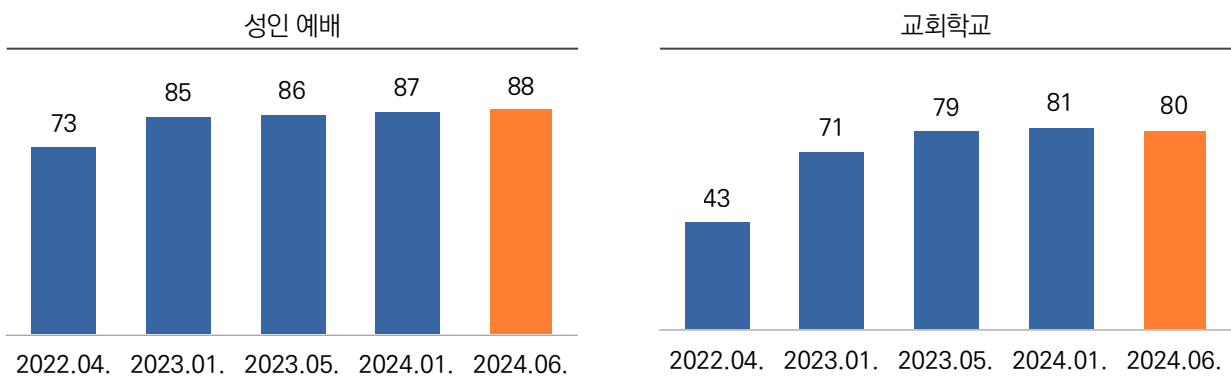


04

[목회자의 인식2: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회복률] 성인예배/교회학교 회복률, 작년 1월 이후 멈춤!

- 코로나19 이전 주일 현장 예배 참석자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성인(장년)예배와 교회학교의 회복률은 어느 정도 인지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성인예배는 2024년 6월 기준 88%, 교회학교는 80%로 작년 1월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 성인예배와 교회학교 현장 예배 모두 작년 1월 이후 회복세가 멈춤을 보여준다. 80%대에서 90%로의 진입이 더디고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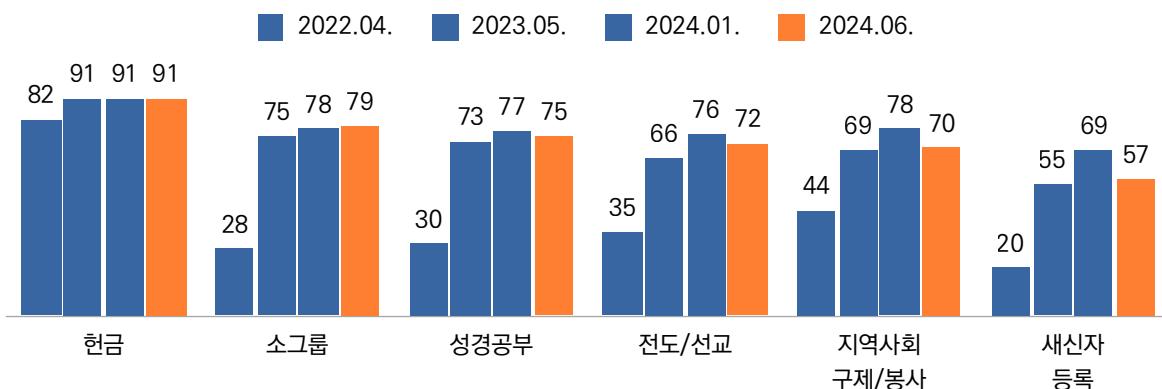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 (담임목사, 평균, %)



헌금을 제외한 주요 사역, 코로나 이전 대비 80% 회복률에 못미쳐!

-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역 회복률은 2022년 이후 어떤 상태일까? 코로나 이전 사역을 100으로 가정하고, 각각 사역 항목에 대한 회복률을 살펴본 결과, 헌금과 소그룹은 2024년 6월 기준 각각 91%, 79%로 큰 변화 없이 모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성경공부, 전도/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올해 1월보다도 회복률이 더 낮아졌고, 특히 새신자 등록은 큰 폭으로 하락해 평균 57%, '지역사회 구제/봉사'도 8%p나 떨어진 70%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역 회복률 (담임목사, 평균 %)



주요 사역 회복률 높은 교회, 젊은 목회자, 중대형 교회, 소그룹 잘되는 교회!

- 코로나 이전 대비 주요 사역 평균 회복률을 교회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담임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소그룹이 잘 운영될수록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헌금의 경우 출석 교인 수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헌금 회복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100%)한 데 반해 29명 이하 교회는 86% 수준에 그쳤다. 한편 29명 이하 소형교회와 500명 이상 대형교회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사역은 '새신자 등록'으로 각각 평균 48%, 78%였다. 이는 헌금 회복률 지표 등과 함께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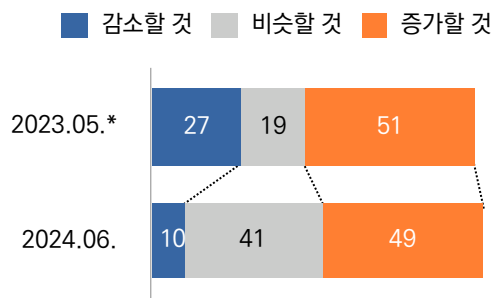
[표] 교회 특성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주요 사역 평균 회복률 (2024.06., 담임목사, %)

		헌금	소그룹	성경공부	전도/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	새신자 등록
전체		91	79	75	72	70	57
담임목사 연령	49세 이하	92	81	78	77	77	66
	50대	91	79	76	73	70	56
	60세 이상	90	75	71	65	62	50
출석 교인 수	29명 이하	86	75	73	68	63	48
	30~99명	92	80	75	73	70	56
	100~499명	94	80	78	76	78	64
	500명 이상	100	85	83	79	81	78
소그룹 활성화 수준	잘 되지 않음	89	66	65	65	63	45
	보통	88	74	72	70	68	52
	잘 되고 있음	95	89	83	79	77	68

향후 출석 교인 수 증가 예상 교회 특징,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 소그룹 잘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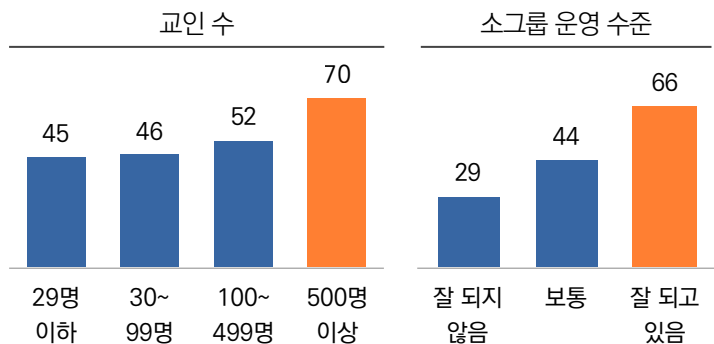
- 향후 출석 교인 수가 현재 대비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물었더니 담임목사 2명 중 1명(49%)은 증가할 것 같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 2023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증가할 것'이라 예상은 거의 비슷했으나 '감소할 것'이란 예상은 크게 줄어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이다.
-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예상한 교회들의 세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교인 수가 500명 이상인 중대형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교회일수록 '교인 수 증가 예상'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향후 출석 교인 수 예상 (담임목사, %)



* '잘 모르겠음' 비율은 제외

[그림] 교회 특성별 '향후 출석 교인 수 증가 예상' 응답률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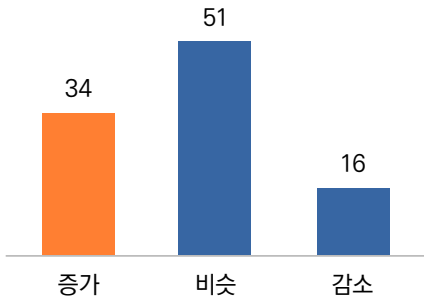
05

[목회자 인식3: 교회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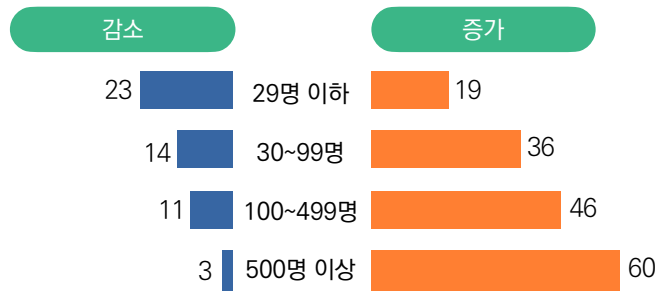
2024년 교회 재정 전국적으로 회복, 상승하는 흐름!

- 2023년 대비 2024년 현재 교회 재정 상태를 살펴본다. '증가했다'가 34%로 교회 3곳 중 1개꼴이었고, '비슷하다' 51%, '감소했다' 1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어려움을 딛고 다시 회복하고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년 대비 2024년 재정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았는데 앞서 언급한 '헌금 회복률 지표'와 동일 맥락(한국교회 양극화 현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023년 대비 2024년 현재 교회 재정 상태 (담임목사, %)



[그림] 2023년 대비 2024년 교회 재정 증감 비율 (담임목사, 교회 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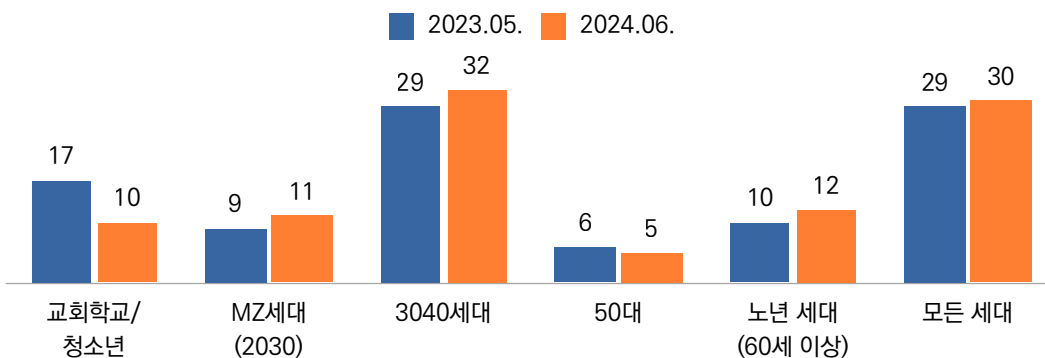
06

[목회자 인식4: 향후 목회 방향]

향후 목회 중점 세대, 3040세대+모든 세대!

- 향후 목회에 있어 중점을 뒀야 할 세대가 누구인지를 물은 결과, 담임목사 3명 중 1명은 '3040세대'를 꼽아 2023년 조사 이래 꾸준히 1위를 기록했다. 또 3040세대와 비슷하게 목회자들은 '모든 세대'를 꼽고 있는데, 이는 목회 속성상 모든 세대(Multi Generation)를 중시하는 목회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2024년 6월 조사에서는 '교회학교/청소년'의 하락이 주목되는데 교회학교를 꼽은 비율은 지난 2023년 대비 7%p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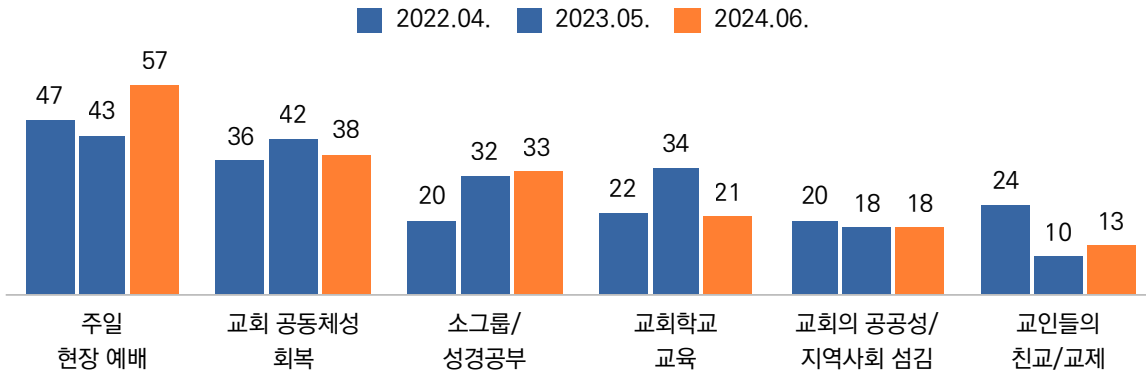
[그림] 향후 목회 중점 세대 (담임목사, %)



향후 목회 중점, '주일 현장 예배' 강화 경향 크게 높아져

- 이번에는 목회자들에게 앞으로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물었다. '주일 현장 예배'에 두겠다는 응답이 2022년 4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57%였다. 거리두기 해제 후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앞서 향후 목회 중점 세대로 '교회학교'를 선택한 비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3.05. : 34% → 2024.06. : 21%) 이 흐름은 목회 중점 방향에서도 이어져 '교회학교 교육' 역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 방향 (담임목사, 1+2순위, 상위 6위, %)



※ 출처

<개신교인 조사>

-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55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 2020.12.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2.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94명, 온라인 조사, 2020.11.14.~11.23.)
- 2022.04.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2022.05.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197명, 온라인 조사, 2023.04.15.~04.25.)
-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68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2023.05.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51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 2023.11.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3.12.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07.~11.15.)
- 2024.06. :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2024.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목회자 조사>

- 2022.04. : 예장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05. (전국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 2023.05.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 2024.01.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5.)
- 2024.06. :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 목회실태 조사', 2024.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7.~06.03.)

이번호 요약

1. 2024년 6월 현재, 교회 출석자들의 신앙 지표 더 나아지고 있어!

-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이 2020년 4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79%를 기록했다.
- 예배 만족도는 2023년 보다 상승했고,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깊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앙이 약해졌다'를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했다.

2. 코로나 이전 대비 주요 사역 회복률 높은 교회, 젊은 목회자, 중대형 교회, 소그룹 잘 되는 교회!

- 소그룹 정기적 참석자가 2023년 1월 23%에서 1년 반 사이 42%까지 19%p나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비 주요 사역 회복률이 높은 교회는 '젊은 목회자', '중대형 교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목회 중점 세대, 3040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

- 향후 목회에서 어떤 세대에 중점을 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담임목사는 '3040세대(32%)'와 '모든 세대(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소그룹, 거대한 변화] (로이스 조 원장,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 ▶ [영상] 골든 타임에서 골든 에이지로 [3040 이노베이션과 목회 전략] (박영호 목사,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 ▶ [서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새물결플러스, 이도영 저)

관련 성경 구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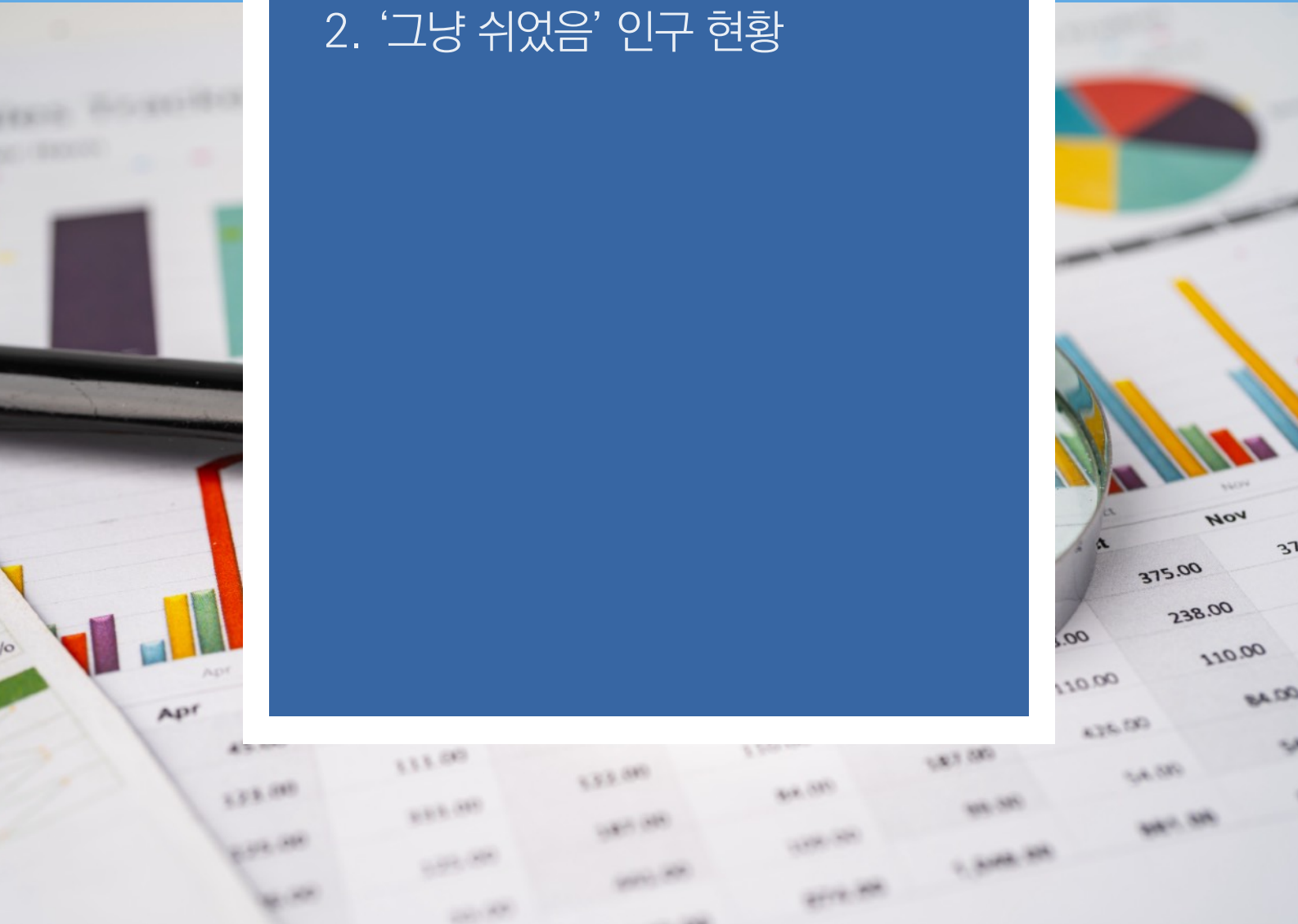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성도들의 신앙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과 목회자의 '전 세대'에 대한 관심/고민이 눈에 띈다. 여전히 성인예배와 교회학교 현장 회복률은 작년 1월 이후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교회 코로나로 인한 교회이탈자를 제외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개개인의 신앙 및 신앙활동 수준은 확실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출석교회 개신교인들에게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을 물었을 때, 코로나 이후 '신앙 나눔',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성경공부/제자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고, 코로나 이전 대비 자신의 신앙수준이 더 '깊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약해졌다'를 넘어서는 점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목회자들은 향후 목회 중점 세대를 3040세대(32%)와 모든 세대(30%)로 꼽았는데 사실상 모든 세대를 다 끌고 가야 하는 목회자의 부담감이 담겨있는 데이터다. '성도의 삶 이해 관점'에서 위 데이터를 보면 '전 성도에 대한 고민'은 '세대고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목회자들에게 얘기한다면 각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생애주기교육'을 시행한 것을 제안한다. 가령 청소년기는 학업, 자기정체성, 이성교제 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인데 학생들이 흥미 있을 수 있는 성경적인 이성교제는 어떠한 것인지 등에 설명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장년기에는 '노후준비', 노년기는 '웰다잉',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대상을 달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미국 성경 이용자 실태
2. '그냥 쉬었음'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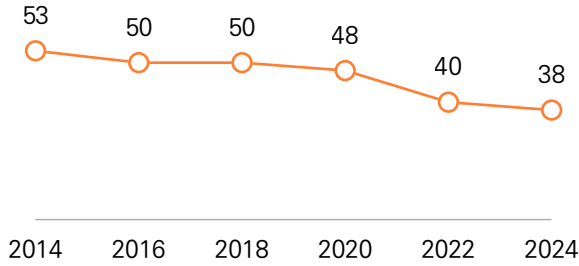




[미국 성경 이용자 실태] 성경 읽는 미국인,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감소!

- 매년 미국성서공회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성경 사용 빈도, 성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인의 성경 읽는 실태와 성경 읽기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 1년에 3~4회 이상 성경 읽는 미국인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4년 53%에서 2020년 48%까지 떨어지다가 코로나 기간인 2022년에 40%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2024년 38%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그림] 성경 읽는 성인의 비율* (미국인, 1년에 3~4회 이상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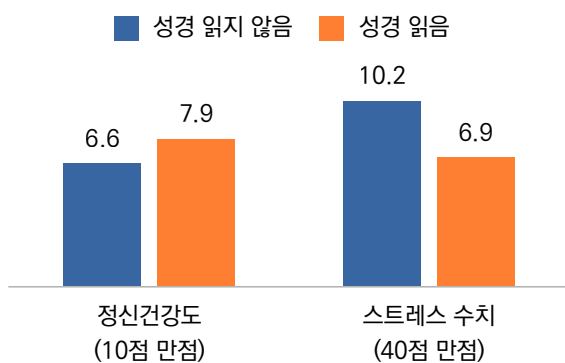


※출처 : 미국성서공회(ABS; American Bible Society), 'State of the bible USA 2024', 2024.07.

성경 꾸준히 읽으면 스트레스 낮아지고 정신건강 크게 개선!

- 성경 읽기는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경 읽기와 정신건강 간 상관도를 조사한 결과, 성경을 읽는 경우 '정신건강도(10점 만점)'가 7.9점, 읽지 않는 이들은 6.6점으로 성경 읽는 이들의 정신건강도가 더 높았다.
- 스트레스 수치 또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40점 만점에 10.2점이지만 성경을 읽는 이들은 6.9점으로 3.3점이나 낮게 나타났다. 성경을 읽으면 정신건강도 양호해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에도 도움이 됨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그림] 성경 읽기와 정신건강 연관성 (미국 교인, 1년에 3~4회 이상 기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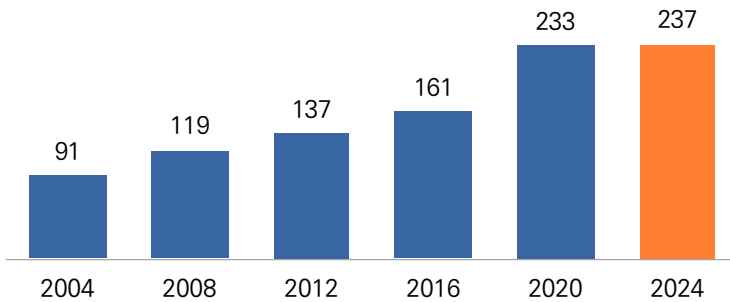
※출처 : 미국성서공회(ABS; American Bible Society), 'State of the bible USA 2024', 2024.07.



['그냥 쉬었음' 인구 현황] '쉬었음' 인구,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 기록!

-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와 학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도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자들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기에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이런 '쉬었음' 인구 현황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2024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쉬었음' 인구는 237만 명으로 2020년 코로나 기간(233만 명) 세웠던 최고치를 넘어섰다. 10년 전인 2004년 91만 명 대비 160%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쉬었음' 인구 수 추이 (연도별 2/4분기 기준,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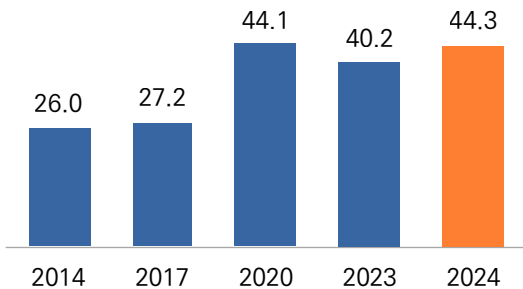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활동상태별(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2024.0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7S&conn_pat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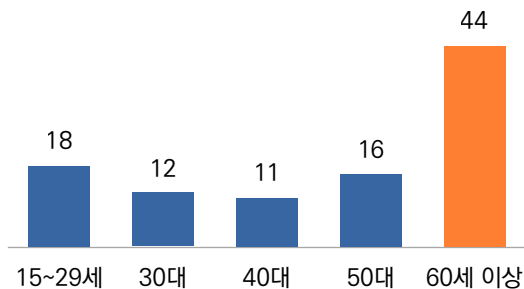
청년층 '쉬었음' 인구, 60세 이상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아!

-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수는 얼마나 될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역시 앞서 전체 '쉬었음' 인구와 마찬가지로 2020년 44.1만 명으로 201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2020년 기록을 뛰어넘는 44.3만 명으로 집계됐다.
- 2024년 7월 기준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44%로 가장 많았고, 15~29세 청년층도 18%로 나타나 청년층 '쉬었음' 비중이 고령층(6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수 추이
(전년 동월(7월) 대비, 만 명)



[그림]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비중
(2024.07, %)



※출처 : 중앙일보, '그냥 쉬는' 청년 44.3만명 역대 최대...75%는 "일할 의사 없다", 2024.08.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1311>)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7월 고용동향, 2024.08.1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93호\(2024년 8월 4주\)](#)

- 정당별 호감도, 경제 전망, 파리올림픽 활약 선수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129호\(2024년 8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인식

[\[기획\] 22대 국회, '정치 오마카세' 가능할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순위 정책 분야](#)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8.14.

[국민 절반 "향후 1년 경기 나쁠 것"... 이재명은 '먹사니즘' 시동](#)

한국일보_2024.8.24.

사회 일반

[정신질환자 가족도 아프다...60%가 "돌봄 부담·차별 느껴"](#)

연합뉴스_2024.8.22.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20%는 25만원 미달](#)

연합뉴스_2024.8.22.

[50대 직장인 퇴직자산 평균은 1억2300만원... 최상층은 얼마?](#)

조선일보_2024.8.22.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 보험금 포기경험..."소액이라서"](#)

연합뉴스_2024.8.21.

[\[단독\] 취업·결혼·출산 3중 지각 사회... 난자냉동 가게에 1만명 달려왔다](#)

조선일보_2024.8.22.

[최민식이 틀렸다? 영화관람료 비싸 극장 떠난다](#)

미디어오늘_2024.8.25.

["이 안에 너 있다...무려 22%나" 부부는 닮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닮았다](#)

동아일보_2024.8.26.

["홀로 버티는 게 답일까?" 은둔청년 소통창 '두더지땅굴'](#)

국민일보_2024.8.24.

[2024 '나홀로 활동', '나홀로 공간'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8.20.

아동 · 청소년 · 청년

[강남3구 유치원 74%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초3 과정 배우기도](#)

연합뉴스_2024.8.21.

[유튜브·인스타·구글에 사로잡힌 10대](#)

매일경제_2024.8.2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최저임금 부담에 직원 줄였다"는 사업체 5년 새 34%→10%](#)

연합뉴스_2024.8.18.

[직장 업무 환경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8.22.

[취준생 목숨거는 스펙, 기업은 "쓸모 없다"...이런 미스매치 해법 \[채용시장 바꾸는 AI\]](#)

중앙일보_2024.8.20.

국제 · 환경

[해리스에 美 첫 여성 대통령 기대감...87개국은 이미 女수반 배출](#)

연합뉴스_2024.8.23.

[미국 Z세대 절반 이상 "대통령·의회 거의 신뢰 안해"](#)

연합뉴스_2024.8.21.

["직장 상사 때문에 퇴사"...MZ 잡으려 파격 조건 내건 日](#)

서울신문_2024.8.19.

건강

["자궁경부암 급감, 희귀암 가까워져"...난소암은 2배로 늘었다](#)

중앙일보_2024.8.20.

기독교 · 종교

['그냥 쉬는' 청년들 부추... 취업의 꿈·비전 불어넣는 교계](#)

국민일보_2024.8.23.

[美 기독교인 "모세·출애굽 이야기 가장 좋아해요"](#)

국민일보_2024.8.21.

[박해 때문에... 세계 이주민 중 47%가 기독교인](#)

국민일보_2024.8.23.

[미 기독교인 5명중 4명 "기독교 영화는 효과적인 전도 도구"](#)

국민일보_2024.8.27.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티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B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가정의힘 생애주기 리더십 컨퍼런스 2024

저희 연구소와 MOU기관인 '한국IFCJ 가정의힘'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10시-16시
- 장 소 : 만나교회 본당
- 참가비 : 2만원 (생애주기 자료집, 식사, 간식 제공)
- 주 최 : (재)한국IFCJ 가정의 힘

참가 신청 링크

강사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교회의 희망:
노년, 가정, 생애주기

단해람 교장(목수리기독교교회)
신앙 교육과 삶의
교육을 잇는 생애주기 교육

신형섭 교수(강신대 기독교교육)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생애주기 교육이 희망이다!

김기철 교수(목회데이터연구소)
노년의 개발 결과
영적 회복이 희망이다!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가정의 힘 생애주기
설문조사 결과 분석

모든 세대를 향한 담대한 희망

노년, 가정, 생애주기 교육이 희망이다!

교회의 생애주기 교육에서 노년, 부모세대의 중요성과 실천사례,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성장하는 사역 모델을 제안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하반기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9월 7일(토) 오후 2:00~3:30
- 장소 : 서현교회(마포구 서교동) 본당 및 유튜브 중계
- 접수 : 온라인(QR or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 기한 : 2024년 9월 6일(금)까지
- 회비 : 1인 10,000원, 교회접수는 전화문의
- 문의 : 070-7578-2957

2024 하반기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

진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그룹사역 운영전략과 실제



온라인접수 QR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